

일거양득 '다문화 엄마학교' 확대한다

목포·나주·장성 3곳 운영 전남도 올해부터 도비 지원 다문화 엄마 역량강화 사업 내년부터 전체 시·군 운영 검토

전남도가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자녀들을 위한 학습 지도, 마을 적응을 위한 한국문화 익히기 등을 위해 목포·나주·장성 등에서 운영중인 '다문화 엄마학교'에 대한 도비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다문화 여성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퇴직교사들을 나서도록 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전체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문화 엄마학교'는 다문화 엄마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해 자녀 학습지도와 학교 적응 지원 등 자녀 교육을 돕는 '다문화 엄마 역량 강화' 사업이다. 다문화 가정 초·중·고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다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남도는 각 지자체별로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이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올해부터 한마을교육봉사단이 교육을 맡게 했다. 모두 60명의 다문화 엄마들이 상·하반기 2기로 나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실과 등 초등학교 과정 7개 과목을 원격교육(온라인)과 출석수업(월 2회)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출석 수업을 화상수업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다. 화상수업은 각자 집에서 테블릿PC를 활용해 담임교사와 2주간 학습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고 보충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부터 장성에서 활동 중인 최현숙 담임교사는 "대면수업을 진행해야 학습효과도 좋고 집중력도 높지만, 비대면수업 시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높은 집중력을 보여 매번 놀라고 있다"며 "국사나 수학과 같이 이주여성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1대1로 개별적으로 만나 지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교육한 이주여

성 초등검정 합격률이 80% 이상이어서 수업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는 3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점차적으로 확대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문화 엄마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출석 수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하반기 교육 대상자는 8월 말까지 3개 시군별로 모집,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9월부터 시작한다.

김중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직접 화상 수업에 참여해보니 코로나19 상황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뜨거운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다"며 "다문화 엄마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분석, 시군 수요조사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바다의 날 행사... 치어 방류하고 해양정화 활동

전남도가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금어장인 영광 칠산바다에 보리새우 297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장세일·이장석 전남도의원, 해양수산 단체와 종사자, 학생 등 1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은 보리새우 방류 후 향화도항 주변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금어장인 영광 칠산바다에 보리새우 297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장세일·이장석 전남도의원, 해양수산 단체와 종사자, 학생 등 150여 명의 참석자들이

바다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바다의 가치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해양수산 보고 대사가 완도에 정해진을 설치한 날이기도 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농촌융합산업 인증경연대회 전남도 전국 최다 30개 선정

올해 농식품부의 농촌융합산업(6차 산업) 인증경연대회 심사 결과 전남농촌융합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은 30개 신규 인증경연체가 선정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융합산업 인증경연체는 지역농산물을 생산한 농촌융합산업 경연체 중 농산물 생산과 2차 제조·가공, 3차 체험·관광을 연계해 최근 2년간 평균 4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곳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올해 신규 인증경연체는 전국에서 총 89개소가 선정됐다. 전남이 3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9개소, 경남·경북·충남이 각각 8개소로 뒤를 이었다.

전국 농촌융합산업지원센터가 이번 선정 과정을 진행했으며, 각 센터는 민간 전문가를 구성해 경연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기초 역량과 산업기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지역사회 및 자원과 연계·활용성 등에 대한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신규 인증경연체로 선정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남6차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한 교육을 비롯 1대1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남도장터·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인증경연체 융복합강화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업 6차산업으로 생산된 우수한 제품을 남도 장터에 입점시키는 등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의 우수 융복합인증 농가를 발굴해 전국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여성 농업인 권리 향상 힘 쏟겠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일 오후 무안군 현경면 무안여성농업인센터를 방문, 교육관에서 농업인 손뜨개 수강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 여성농업인센터 찾아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선 무안 여성농업인센터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가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앞서 지난날 17일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강진, 보성의 영농현장도 방문한 바 있다.

무안 여성농업인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무안 지역 여성농업인의 인문학 강좌를 비롯 고충상담, 제철 꾸러미사업, 요가·한글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농어촌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매주 1회 지역 어르신 30여 명에게 무료 반찬을 배달해 고령농업인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송자 무안 여성농업인센터장은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촌 복지 및 지역공동체 활동 등에서 여성농업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역할에 따라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며 "여성농업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농촌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6개 분야 18명 모집

전남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 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건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미술

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제도다.

전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현재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비롯 가격, 주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모집인원은 18

명으로 모집 분야는 조각과 회화, 건축, 공예, 공간·환경 디자인, 멀티미디어 등 6개 분야다. 분야별로 조각 5명, 회화 4명, 공예 3명, 건축 3명, 공간·환경디자인 2명, 멀티미디어 1명 등을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7일까지 전남도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겨울배추 휴경지원' 시범사업 추진

배추 주산지 진도·해남군 대상

전남도는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도내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겨울배추 휴경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선다.

배추는 그동안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산지 폐기가 반복됐으며, 올해는 배추가격이 높게 형성돼 농가 기대심리에 따른 과잉 재배가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과 농협,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 도입을 결정하

게 됐다.

사업은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과 진도 등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농지는 최근 2년간 겨울 배추를 재배한 필지로,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내년산 겨울배추 농지를 휴경할 실정작 농업인이다. 지원단가는 3.3㎡당 1250원으로, 읍·면주민센터를 통해 8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8월 30일까지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이번 겨울배추 휴경제 도입 면적은 445ha로 평년 재배면적의 10%에 달해 가격하락 등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진도 관매도·여수 낭도서 '국제 청년 섬 워크 캠프'

3일~10일 6개국 33명 참가

전남도가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진도 관매도와 여수 낭도에서 국제워크캠프기구와 함께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캠프는 전남의 '가고싶은 섬'에서 국내외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우리나라를 포함 총 6개국 3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한다.

진도의 아름다운 섬 관매도에서 펼쳐질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인(in) 숲술 관매도'에는 3일부터 10일까지 5개국(한국,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체코, 필리핀) 17명이 참가한다. 바다 정화활동, 벽화 그리기 등으로 마을정관을 정비하며, 마을식당 메뉴 개발과 함께 판매까지 하는 '팝업(Pop-Up) 식당'을 운영해 수익금 전액을 마을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여수에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인(in) 낭만 낭도'도 연이어 개최된다. 3개국(한국, 베트남, 에콰도르) 16명이 참여해 해안쓰레기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자원을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설치작품을 만들고 마을정관 정비, 독거노인 일손 돕기 등을 펼친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히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